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 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마카베오하권 7:1-2.9-14 | 제2독서 | 테살로니카2 2:16-3:5 | 복음 | 루카 20:27-38

◎말씀 <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 >

우문현답이라는 말은 오늘 복음 말씀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짐짓 잘난체하며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논쟁을 걸어오는 사두가이파들의 질문이,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무지 어리석게만 느껴집니다. 모세의 율법까지 들먹이며 내놓은 내용인즉슨, “일곱 형제와 차례로 결혼한 어느 부인이 죽었다면 누구의 아내라고 할수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재판이나 지도층에 속하여 갖가지 현세적 특권을 누리온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였기에,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삶밖에 몰랐고,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고 해도 지상 삶의 연장 이상으로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승에서는 자녀 출산이나 결혼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부활의 차원, 영원의 차원에서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자식 낳는 일도 없고 오직 하느님의 자녀됨만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답변이니 알아들을 귀 있는 자만 알아들으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루가복음사가는 모든사람이 이새로운 시대의 삶을

누릴 수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만이 들어갈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루가 20,35-36). 부활의 자녀들은 부활의 몫을 나누는 사람들인 만큼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법도 없고, 부활의 결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사도13,33 참조).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출애 3,6)이라는 말에는 모세에게 언약하신 바와 같이, 그 후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순교하는 일곱 아들과 어머니가 하는 말처럼, 하느님 편에서 보면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임에(2마카 7,9 참조) 틀림없습니다. 생사를 초월하여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이야말로 영원한 삶 곧 부활이며,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자녀됨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1월12일(화)	성 요사팍 주교 순교자 기념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4,735.00 \$ 976.00
11월13일(수)	성녀 프란치스카 하비에르 카브리니동정 기념일	오전7시30분	미사예물 성소후원	\$ 630.00 \$ 274.00
11월14일(목)	연중 제32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 물 방	\$ 221.00 \$ 78.00
11월15일(금)	연중 제32주간 금요일	오후7시30분	기타수입/ACA 묘지미사	\$ 250.00 \$ 480.00
11월16일(토)	연중 제32주간 토요일	오후 5시	합 계	\$ 7,644.00
11월17일(일)	연중 제33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아동: 26명 성인: 180명
교무금 봉헌자	김순녀.진엘리사.김길록.안기창(11-12월)김기상.장영수(9-12월)박병수.류승교(10-11월)신 흥재(7-11월)권오돈(8-10월)한삼(9월)전정옥.최이주.양경민(10월)윤영자.박원상.남필래. 허형안강순.김옥륜.김운태.김상돈.전기례.김규태.엄희수.백정심.김양순.조용주.황호민11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교회는 요새가 아닌 모든 사람 환대하는 천막” - 프란치스코교황 수요일반접견 사도행전 교리교육 중에서 발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은 바오로 사도가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과 만남이 있는 뒤 바르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박해는 복음 선포에 대한 좌절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좋은 씨앗을 전파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해 떠나야 했지만 하느님 말씀과 함께 떠났으며, 어느 곳에서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시리아 안티오키아에 도착하여 1년 동안 그곳 교회공동체가 뿌리내리도록 가르치고 돕습니다. (사도 11,26)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안티오키아는 신앙인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두 복음 전파자인 바오로와 바르나바 설교 덕분에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안티오키아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사도 11,26)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본성은 ‘요새’가 아닌 자신의 터를 넓히고(이사 54,2 참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천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교회 즉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가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하느님을 찾고자 성당에 찾아왔을 때 차갑게 닫혀 있는 문을 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열린 문의 새로움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했지만 이방인들도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려 있는 새로움이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우 섬세한 신학적, 영적, 규율 문제들이 다뤄졌습니다.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모세 율법 사이의 관계가 다뤄졌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사도회의중 있었던 교회의 기둥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의 연설이었습니다.(사도 15,7-21; 갈라 2,9 참조) 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단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표현들을 거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논의를 통해 공동의 길이 도출되었으며, 결정 사항은 안티오키아로 보낸 편지를 통해 승인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우리에게 차이점들을 다루는 것,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에페 4,15) 방법에 대한 중요한 빛을 비춥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교회 방법은 성령의 빛으로 수행된 식별에 근거하는 것, 주의 깊고 인내로이 경청하고 대화하는 것에 근거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성령께서는 달함과 긴장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진실과 선과 일치에 도달하도록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안티오키아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공동합의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편지를 쓴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결정하였습니다.”(사도 15, 28) 이것이 바로 공동합의성이며,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최이주.베아타
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
배미성.오티리아/박모란.글라라
고공자.벨라뎃다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김배국.사도요한의 영혼	익명	연	양한옥.요셉, 주영만, 김현순의 영혼	윤재경알베르도
연	유인희.마리아, 최갑순.마리아 유세형.요셉, 심흥섭의 영혼	류재순.마리안나	연	모든 연령들을 위하여	정의의모후Pr.
연	전승만.요셉의 영혼	전비아.전앤드류 가정	연	정세실리아, 황자, 한소피아의 영혼	이나숙.데레사
생			생	고원석.바오로, 고공자.벨라뎃다의 영육간 건강	임그라시아

◎구원의 문◎

어디든 골고루 햇빛 뿌리고 오늘의 그늘이 내일 양지로
오늘의 겨울이 내일 봄으로 알아냈다
그럴 만한 뜻 숨어 있는 것을

유경환.클레멘스.시인

가장
중
지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새 생명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 * 성 명: 조민우
- * 출생일자: 2019년11월7일생
- * 가족관계: (아빠)조성용.레오
(엄마)김남희.마리아
(형)조재우
(누나)조수아
- * 구 역: 3구역

●공동체 소식(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 1.리노공소 미사안내
일시:17일(일)성당에서 오후3시 30분 출발
참여단체;전교부.하상회.미사에 함께해주세요.
- 2.모임안내
꼬미시움 :17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사 목 회 :24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구역장회의:24일(일)오후1시.엘리사벳방
- 3.성령찬미미사 및 성시간
일시:22일(금)오후7시30분.성당
체험발표;김희정.가브리엘라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 4.꾸리아 간부 Workshop(서북미 한인꼬미시움)
일시:15일(금)-17일(일)
장소:Angels Camp 문의:윤재경.알베르또
참가대상:꼬미시움.꾸리아간부.운영위원및가족
- 5.본당 댄스파티(청년회후원 위한)안내
일시:16일(토)오후8-10시.입장료:\$20
문의:장현철.엘리야 및 각구역부장
많은 참석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도네이션:서메리(\$100)남스식품(\$100)사무라이
상품권(\$100)북경상품권(\$100)스타벅스(커피
콩,아이스커피용가루)익명(\$100) 감사해요
- 6.평신도 주일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을 되새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합니다.(강론;사목회장)

- 7.성가대원 모집
구원자이신 예수님탄생을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미하실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성탄성가연습:매주일요일 오후1시(베드로방)
문의:이윤상(849-1202) 서안나(600-1936)
- 8.대림절 음악피정(찬미와 함께하는)
일시:12월7일(토)오후7시-9시30분.성당
12월8일(일)오후1시30분-3시30분.성당
강사:원영배.어거스틴부제님(St.Bede성당)
주제:오소서,임마누엘.
천상의 노래를 품고 우리안에 오소서
- 9.교구 2차헌금 안내
일자:24일(일)모든미사
목적: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10.성지순례 안내
일시:1월19일(일)-22일(수)멕시코 과달루페
순례비용;\$1,180(1인) ※게시판참고해주세요
신청;사무실(참가신청서,여권사본제출)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복사자 교육
일시:16일(토)오후3-4시.성당
대상:첫영성체받은 모든학생(아기예수반제외)
대상자 학부모도 함께 참가바랍니다
강사:김상돈.도미닉부제님
- 식사봉사(이번주);복지부 보조:이원건.전비아
식사봉사(다음주);청년부 보조:김규철.송돈희
- 먼저인사해요(주보봉사및인사나누기);7~8구역
- 예비신자 교리반:매주목요일 오후8시.데레사방
- 폐 플라스틱음료병,캔 수집(친교실-청년회)

화답송	 <p>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 하리이다</p>			
전례봉사	연중32주일(11월10일)	연중33주일(11월17일)	그리스도왕대축일(11월24)	대림제1주일(12월1일)
해설	최금주.요안나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임상일.프란치스코
제1독서	안선미.미카엘라	조용주.마리안나	안선미.미카엘라	엄용덕.그레고리오
제2독서	박춘자.마리아	이영숙.벨라뎃다	박춘자.마리아	엄선경.베로니카
복사	최준우.장현철	김규철.윤여훈	허호영.박성호	최진호.이상인
봉헌/기도/청소	7-8구역	7-8구역	7-8구역	9-10구역
헌금위원	고원석.윤재경.안강순	안병훈.박수옥.정의주	이영숙.임혜숙.이경희	전비아.유정임.나송희